

최세진의 번역 활동

강식진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I. 훈민정음 창제와 번역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창제되기 전까지 조선에서는 우리말을 그대로 적을 방법이 없어, 한문이 우리말을 기록할 수 있는 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문자 생활은 한문으로 하는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당시의 문화 수준에서 기록이 필요한 계층은 모두 한문을 익혀야만 했고, 식자(識字)란 한문을 읽고 이해하고 쓸 줄 안다는 의미였다. 한문에 대해서는 중국의 사정도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도 지역마다 말이 달라 한자라는 문자는 비록 입말을 그대로 적지는 못했지만 공간과 시간을 넘어 의사를 알리고 소식을 남기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였다.

중국인들이 말의 소리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은 위진대(魏晉代)에 들어온 불경을 번역하면서이다. 소리글자였던 범어(梵語)로 기록한 불경을 뜻글자인 한자로 번역하면서 말소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중국에 성운학(聲韻學)이란 학문이 태동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국인은 이때 이미 자음과 모음을 오늘날과 같이 발음 부위와 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또 중국의 지식인들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음계(音系)에 따라 한자(漢字)를 배열한 일종의 사전(字典)인 운서(韻書)를 끊임없이 편찬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언어학적 업적과 운서가 언제 우리 땅에 들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늦어도 고려(高麗) 때부터는 우리 땅에도 운서가 복각되어¹⁾ 과거(科擧)를 보기 위한 한시(漢詩) 공부나 시작(詩作)에 응용되거나 혹은 한자에 대한 참고용으로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조선 초에 이르면 이러한 운서가 대량 복각되거나 자체적으로 운서를 제작하게 된다.

조선조에는 세계 어느 문자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훈민정음은 전래의 기록 수단에서 발전된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특정인의 창제로 태어난 문자이다. 따라서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의 언어학적 지식에 따라 그 문자의 우수 여부가 일시에 결정되게 마련이었다. 다행히 훈민정음의 창제에 참여한 학자들은 중국 성운학에 대한 깊은 이해로 충분한 언어학적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훈민정음은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으리 만치 훌륭한 음소 문자의 체제와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우리 민족이 쉽고 편하게 일상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 한자의 전래음이나 중국 현실음을 반절(反切)이 아닌 소리 부호로 적을 수 있게 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훈민정음 식 한자음 표기체계는 완벽한 발음부호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한자음을 음소 단위의 기호로 표기한 것은 중국보다도 4백 년 이상 앞선 것이다.²⁾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다 하더라도 국제적 의사 소통 도구는 역시 한문일 수밖에 없었고, 이미 한문에 숙달된 당시 지식인들로서는 훈민정음을 구태여 써야 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의 문자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1) 卷一·卷二의 끝에 “大德庚子良月梅溪書院刊”이라는 刊記가 붙은 覆刻本 『新刊排字禮部韻略』을 京城 瀨戶潔 씨가 소장하고 있었다고 小倉進平, 『增訂 朝鮮語學史』(刀江書院, 1940, 大提閣 影印本 1986, 503쪽)에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의 “大德庚子”는 忠烈王26年(1300년)에 해당한다.

2) 표음문자로 한자음을 표기한 첫번째 예는 몽고(蒙古)의 파스파문자(八思巴文字: Phags-pa script)로 표음한 『몽고자운』(蒙古字韻)(1308년)이고 두 번째는 조선의 『홍무정음역훈』(正韻譯訓)(1455년)이며, 로마자로 표음한 첫 예는 Matteo Ricci (1552- 1610년)가 지은 『태서자모』(泰西字母)와 『서자기적』(西字奇述)(1605년)이다. 조선의 부호체계는 한 두 권의 편찬물에 그치지 않고 이후 수백 년 동안 일관되게 한어와 관계된 저작에 적용하므로 이 부호체계로 된 자료는 타 체계로 기록된 자료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중요하다.

이렇게 잘 만들어진 훈민정음을 널리 쓰도록 적극 권장하는 한편 과시(科試)의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집현전(集賢殿)이나 언문청(諺文廳)이 중심이 되어 훈민정음으로 창작을 하거나 기왕에 있던 한문 문헌을 번역하게 되었다.

이때까지 있었던 문헌은 주로 지식인을 위한 것이었고 이는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일반인을 위한 번역의 대상은 이러한 지식인을 위한 것보다는 보편적 성격을 지닌 것들 위주로 채택되었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초기에는 간경도감(刊經都監)을 중심으로 불경이 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어쨌든 훈민정음 창제 이후 약 50년간에 40여종 200여 권의 번역서가 나오게 된 것³⁾은 한문 식자층 전유물이었던 지식을 일반인에게 훈민정음이라는 쉽고도 실용적인 문자로 보급하자는 당시 집권층의 깊은 배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이것의 실용 가능성이 완전히 확인되고, 일반 백성에게 보급된 후인 성종(成宗) 이후에는 우리말이나 글에 대한 순수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는다. 이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⁴⁾ 훈민정음 자체가 소리를 적는 음소 문자로 창제되어 쉽게 익혀 실용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언어학적 차원에서 연구할 수 있는 학풍이 조성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최세진은 평생 역관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최세진은 성종(成宗) 23년인 1492년에 이미 강이관(講肄官)을 지내고 있던 역관이었으며, 역관으로서 아주 드물게 연산군(燕山君) 9년인 1503년에 시행된 별시(別試)에 2등으로 급제한 사역관(司譯官)이었다. 이후 어전통사(御前通事)와 중국에의 사절(使節) 통사를 도맡다시피 하여 조정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으며 그는 중언계급이면서도 이례적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당상관이 되는 특출한 통사였다. 조선조 전반에 걸쳐 다시 더 찾아볼 수 없는 활동적인 역관이었지만 그에 대해 소상히 기록한 문헌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최세진의 역관으로서의 활동은 그의 저술이나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나는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3) 서병국(1978). 『新講국어학사』(서울 : 학문사). 152쪽.

4) 앞 글. 169-172쪽에 상술되어 있음.

II. 최세진의 저술

지금까지 최세진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전해 오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번역노걸대(翻譯老乞大)』(2卷1冊)—1517년 이전
『번역박통사(翻譯朴通事)』(3卷1冊)—1517년 이전, 중·하권은 미발견
『노걸대박통사집람(老乞大朴通事集覽)』(2卷1冊)—1517년 이전
『사성통해(四聲通解)』(2卷2冊)—1517년
『훈몽자회(訓蒙字會)』(3卷1冊)—1527년
『운회옥편(韻會玉篇)』(2卷2冊)—1536년
『이문집람(吏文輯覽)』(4卷1冊)—1539년
『이문속집집람(吏文續集輯覽)』(4卷1冊)—1541년

이외에도 중종실록(中宗實錄)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저술이 더 있음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 『성학심법(聖學心法)』—1521년
『친영의주언해(親迎儀註諺解)』—1524년
『책빈의주언해(冊嬪儀註諺解)』—1524년
『번역여훈(翻譯女訓)』—1532년
『소학편몽(小學便蒙)』(4卷1冊)—1537년
『속첨홍무정운(續添洪武正韻)』—미상
『언해효경(諺解孝經)』—미상

위의 저술 중 번역 혹은 언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후에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로 이름 붙여진 『노걸대』와 『박통사』로 5권2책 중 3권2책이 전해지고, 『친영의주언해』, 『책빈의주언해』, 『번역여훈』, 『언해효경』은 지금 전해지지 않는다.

최세진이 『노걸대』와 『박통사』를 번역하면서 적용한 그의 번역 원칙은 『사성

통해』의 뒤에 붙어 전해지고 있는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에 잘 나타나 있다. 따라서 최세진의 번역에 대해서는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 및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훈민정음으로 뜻풀이나 발음을 달아 번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저술로는 『노걸대박통사집람』(老乞大朴通事集覽)과 『훈몽자회』(訓蒙字會)가 있다.

Ⅲ. 최세진의 번역 활동

1. 언해(諺解)와 번역(翻譯)의 의미

“번역”이란 한 나라 말이나 혹은 그 나라 말로 된 기록을 다른 나라 말로 바꾸거나 그것을 옮겨 적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말을 바꾸어 전달하는 것을 “통역”이라고 하지만 번역에는 이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통역(通譯)의 의미로 “翻譯”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조선조에도 번역이란 어휘는 오늘날과 크게 달리 쓰이지는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검색해 보면 번역이란 어휘는 245개의 기사에 등장할 정도로 보편적으로 쓰였다.

훈민정음 창제 후 한문을 이른바 언문(諺文)으로 풀이한 것을 “언해(諺解)”라고 하였는데, 언해란 어휘는 주로 한문을 번역한 것에 국한되어 쓰였다. 한문의 번역만을 하필 언해라고 한 것에 대해 모화사상에 기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이에는 다른 사유도 있는 듯하다. 한문이 이미 식자층의 기록 수단으로 자리잡아 이들은 번역하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일상 문자로 자리를 잡고 있던 시대에 이를 번역하는 것은 이러한 식자층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쉽게 풀어 쓴다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한문을 번역한 것에 한해서는 “쉬운 글로 풀어썼다”는 의미로 언해라고 했을 것이다. 이는 한문이 아닌 기타 인접국의 말을 번역한 경우에는 “신번(新翻)” 혹은 “신역(新譯)”이라 하고 언해라는 말을 쓰지 않은 점을 보아도 그 연유를 알 수 있다. 언해는 “쉬운 글로 풀어썼다”는 의미이니 모화사상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훈민정음을 언문(諺文)이라고 한 것도 “쉬운 글”이란 뜻이니 귀하고 천한 것의 분별은 아닌 듯하다.

최세진은 『노걸대』와 『박통사』의 낱말 한자에 발음을 달고 그 뜻을 옮겼는데 그 서명(書名)은 역시 『老乞大』와 『朴通事』였으며, 이후 계속 출간되면서도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 『노걸대신석언해(老乞大新釋諺解)』, 『박통사신석언해(朴通事新釋諺解)』 등의 서명을 가져 “번역”이라는 관명(冠名)이 사용된 적은 없다. 다만 최세진이 손질하여 새로 간행한 이 책을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성통해』에 붙여 전하는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에서 지칭하는 책이 바로 이것이어서 남광우 님이 그렇게 부르자고 하였기 때문이다.⁵⁾ 최세진이 이렇게 아주 이례적으로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에서 “번역”이란 어휘를 쓰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번역이라는 관명이 “번역명의(翻譯名義)”, “번역여훈(翻譯女訓)”에서 보이는 것처럼 아주 쓰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의 번역이라는 용어는 그 내용으로 보아 말소리를 바꾸어 적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의 내용은 “국음(國音)”, “한음(漢音)”, “언음(諺音)”, “방점(旁點)”, “비(非)뽕 봉(奉)뽕미(微)뽕삼모(三母)”, “청탁성세지변(淸濁聲勢之辨)” 등 8개 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발음에 관한 것으로, 뜻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소리를 바꾸어 적는 것을 이 범례의 방점조(旁點條)에서는 아래와 같이 “반역(反譯)”이라고도 하였다.

…其呼與國音去聲相似, 故反譯則亦一點, …其呼勢同國音平聲之呼, 故反譯則無點, …其聲勢同國音上聲之呼, 故反譯則亦二點…

(…그 소리가 우리나라 음의 거성과 흡사하기 때문에 반역에서도 역시 점 하나를 찍고, …그 발음이 우리나라 음의 평성과 같기 때문에 반역에서는 점을 찍지 않았으며, …그 소리의 기세가 우리나라 음의 상성과 같기 때문에 반역에서도 역시 점 둘을 찍었다.)

5) 남광우, 「신발견인 최세진저 “翻譯老乞大” 卷上을 보고」, 『국어국문학』, (서울 : 국어국문학회, 1972, 55, 57 합병호) 205쪽.

여기에서의 “번역”은 “번역”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인데, 이는 『번역노걸대 박통사』의 한어의 발음 표기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최세진의 『노걸대』 『박통사』에 대해서는 “번역”이나 “번역”은 한어의 발음을 훈민정음 식으로 옮겨 적는 문제를 의미한 것이고, 언해는 훈민정음으로 그 뜻을 풀이하는 것이란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아 그 실체를 볼 수 없지만 최세진이 번역한 『번역여훈(翻譯女訓)』⁶⁾이나 중국어가 아닌 유구어(琉球語)에 관한 것이지만 “번역”이란 관명(冠名)이 붙은 것으로는 『어음번역(語音翻譯)』(1501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모두 어음(語音)을 옮긴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2. 어전(御前) 및 사신(使臣) 번역 활동

최세진에 대해 소상히 기록한 것이 현재까지 전해 오는 것은 없으므로 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것을 참고하여 그의 행적을 살펴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 근거하여 최세진의 번역 활동과 관계된 것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성종 23년(1492년) 9월—강이관(講肄官) 최세진이 범죄(犯諱)하였다.
- ② 연산군 9년(1503년) 5월—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 이세좌(李世佐)의 천거로 중국 사신(使臣)이 묵는 사관(使館)에서 최세진은 송평(宋平)·송창(宋昌) 등과 함께 중국어를 익힐 기회를 가지게 된다. 같은 해 8월에 봉세자별시(封世子別試)에서 2등으로 급제하였다.
- ③ 연산군 10년(1504년) 12월—갑자사화(甲子士禍) 때 처형된 이세좌(李世佐)의 천거가 문제되어 파방(罷榜)되었다.
- ④ 연산군 12년(1506년) 3월—어전 번역에서 행한 공로가 인정되어 그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 ⑤ 중종 4년(1509년) 1월—상중(喪中)에 첩을 얻고, 일찍이 부경(赴京)할 때 남의 재물을 많이 가지고 가다가 법관(法官)에게 탄핵을 당한 바도 있어, 사표(師表)로서 적합치 않다는 이유로 체직(遞職)되었다.
- ⑥ 중종 5년(1510년) 6월—정시(庭試)에 합격하고 상을 받게 되었다.

6) 『중종실록』(中宗實錄) 73권 23장에 기록되어 있음.

- ⑦ 중종 10년(1515년) 11월—영의정(領議政) 유순(柳洵)은 문신(文臣) 중에 이문 및 한음을 잘 아는 자는 최세진 한 사람뿐이라고 하였다.
- ⑧ 중종 12년(1517년) 12월—최세진은 성품이 탐비(貪鄙)하다 하여 거듭된 신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섬시(內贍寺) 부정(副正)으로 복직하고 한학 교수(漢學敎授)를 겸임하였다.
- ⑨ 중종 13년(1518년) 4월—최세진은 간세(奸細)하기 짝이 없다고 간하나, 사대(事大)의 일이 지극히 중요하니 그 직을 파할 수 없다고 하였다.
- ⑩ 중종 13년(1518년) 7월—질정관(質正官)으로 임명되어 사신과 함께 명나라에 갔다가, 중종 16년(1521년) 1월 귀국하였다.
- ⑪ 중종 15년(1520년) 4월—최세진을 정(正)으로 삼았으나 그 사람됨이 장관에 맞지 않으니 바꾸라는 건의에 중종은 최세진은 이문과 한어에 능하여 버릴 수 없다고 하였다.
- ⑫ 중종 16년(1521년) 1월, 4월, 5월—최세진의 사람됨을 들어 누차 탄핵하나 중종은 이를 윤허하지 않았다.
- ⑬ 중종 16년(1521년) 7월—최세진은 어전에서 명(明)의 자문(咨文)에 들어 있는 각종 제도나 법령에 관계된 용어 천여 개를 일일이 해독하였다.
- ⑭ 중종 23년(1528년) 1월—최세진이 질병이라도 난다면 그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고 후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 ⑮ 중종 31년(1536년) 12월—최세진은 노쇠하여 귀를 먹고 요하(腰下)가 온전하지 못해 어전통사 노릇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위와 같은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최세진은 어전 번역을 잘 한 공로로 파방되었다가 회복되는가 하면 명나라의 질정관으로 파견되기도 하였고, 그의 행적에 문제가 있다고 끊임없이 올리는 탄핵에도 불구하고 그의 특출한 능력 때문에 중종은 그를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보고 항상 한어의 번역에 임하도록 하였으니, 그의 한문·이문(吏文)·한어에 대한 지식과 번역 솜씨가 얼마나 출중하였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겠다.

3. 번역 저술 활동

최세진의 어학적 능력은 운학이나 역학과 관계된 저술이나 번역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그는 기존의 순 한어로만 적혀 있던 『노걸대』와 『박통사』를 손질

하고 낱말의 한자에 훈민정음 식 발음부호를 다는가 하면 방점으로 성조를 나타내어 당시로서는 완벽한 한어 교습서로 탈바꿈시켰다. 그가 이렇게 저술한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 및 『노걸대박통사집람』은 이후 수백 년간 조선조 중국어 학습서 번역의 전범(典範)이 되어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면서 계속 수정 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운서인 『사성통해』를 편찬하여 여기에도 훈민정음 식 발음 체계로 전통음과 속음 및 현실음을 달았으며, 당시 유행하던 『천자문』(千字文)과 『유합』(類合)을 대신할 『훈몽자회』를 저술하여 한자를 부문별로 분류하고 음과 훈을 달았다. 이 책의 〈범례〉에서는 훈민정음에 대한 그의 독특한 견해를 밝혀 국어학적 자료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사성통해』와 『훈몽자회』는 최세진의 저작으로서 번역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걸대』 『박통사』를 위주로 그의 번역 저술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노걸대』와 『박통사』 및 『노박집람』

『老乞大』라는 서명의 “老”는 “잘 통하는” 정도의 중국어이고 “乞大”는 “契丹”과 같은 것으로 거란족을 지칭하는 중국어의 명사이나, 몽고어를 위시한 중국 북방의 변방 민족어에서는 이것이 “중국”이란 뜻으로 쓰였다. “老乞大”는 결국 “중국어”이라는 의미로 보는 학설과 “老”는 “진짜”, “진정한”의 의미의 몽고어이고 “乞大”는 “漢語”라는 의미의 몽고어로 『老乞大』는 “眞漢語”의 의미라는 두 가지 학설이 있다.⁷⁾ 이러한 의미를 지닌 『노걸대』는 몽고족이나 중국의 변방 민족들 간에 중국어 학습서로 통용되다가 고려(高麗)로 들어온 것이다.⁸⁾ 그리고 『朴通事』는 박(朴)씨 성을 가진 통사의 주관으로 여럿이 내용을 보충한 중국어 교습서이다.⁹⁾ 『노걸대』가 비교적 간단하고 기초적인 내용의 교습서라면 『박통사』는 풍부한 내용의 고급 중국어 교습서이다. 『박통사』는 1346년에서 1423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고 『노걸대』는 이보다 먼저 만들어져 이즈음에 한 반도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¹⁰⁾

7) 강식진(1985). 『『老乞大』 『朴通事』 研究』(臺北：臺灣學生書局). 17쪽.

8) 앞 책. 18-19쪽.

9) 앞 책. 20쪽.

10) 앞 책. 21-22쪽.

『노걸대』는 원래 한어만 적혀 있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여러 종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동일하다.¹¹⁾ 한어만 기록된 『박통사』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훈민정음 식 발음부호로 한자음을 표기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 하나는 이미 전래되어 와 조선어 속에 자리 잡은 조선의 한자음을 표기한 것으로 『동국정운(東國正韻)』, 『화동정음통석운고(華東正音通釋韻考)』, 『화동협음통석(華東叶音通釋)』, 『삼운성취(三韻聲集)』, 『규장전운(奎章全韻)』 따위가 그것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어음을 적은 것으로 중국의 운서인 『홍무정운(洪武正韻)』을 들여와 표음한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이 있고 이 『홍무정운역훈』의 축약본이라 할 수 있는 『사성통고(四聲通考)』와 이 『사성통고』의 증보판이라 할 수 있는 『사성통해』가 있다. 그런데 이 『홍무정운』은 중국의 한 지역의 한 시대 중국어 발음을 적은 것이 아니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예로부터 전해 오던 음운체계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를 축약한 『사성통고』에서는 당시의 현실적 한어음을 “속음(俗音)”이라 적어 두었고 최세진은 이에 보태어 그가 관찰한 중국의 현실음을 “금속음(今俗音)”이라 표기해 두었다.

『노걸대』와 『박통사』는 중국어 교습서였다. 따라서 최세진이 번역에 임하는 태도는 어디까지나 실용주의적이었다. 누구나 훈민정음으로 『노걸대』와 『박통사』를 활용해 중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최세진의 일관된 번역 태도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사성통해』 뒤에 붙어 있는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에 잘 나타난다.

최세진은 지금까지 전래되어 오던 『노걸대』와 『박통사』에 대해 극히 적은 부분을 수정하면서 자기가 창안한 훈민정음 식 발음부호 체계로 중국음을 달고 의미를 풀이하여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를 만들고 동시에 어려운 낱말을 골라 해설하여 이 두 책의 사전적인 『노걸대박통사집람』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사성통해』가 만들어진 1517년을 많이 앞서지 않은 시점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¹²⁾

11) 최근 경북대학교 남권희 교수가 종래의 것과는 다른 것 하나를 발견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아직 직접 보지 못하였다.

12) 강석진(1985). 30-31쪽.

(2) 번역의 특징과 의의

최세진이 『노걸대』 『박통사』를 번역할 때 고심하고 세운 원칙은 「번역노걸대박통사법례」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법례를 중심으로 최세진은 실제로 어떻게 번역하였으며, 이는 어떠한 특징과 의의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최세진은 뛰어난 언어학자였다. 그는 중국어를 면밀히 관찰하여 그 음운현상을 정확히 파악하였다. 이러한 한 단면이 「번역노걸대박통사법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아래와 같다.

……但連兩字皆上聲而勢難具依本聲之呼者，則呼上字如平聲濁音之勢，然後呼下字可存本音，故上字二點，若下字爲虛或兩字皆語助，則下字呼爲去聲。(翻譯老乞大朴通事凡例 旁點條)

(그러나 연이어진 두 글자가 모두 상성이어서 본래의 성조를 모두 갖추어 발음하기 어려운 것은 앞의 글자는 평성탁음으로 발음한 후 뒤의 글자는 본래의 음인 상성을 그대로 발음한다. 따라서 앞의 글자는 두 개의 점을 찍어 표시한다. 만약 뒤의 글자가 허자이거나 두 글자가 모두 어조사일 때는 뒤의 글자는 거성으로 발음한다.)

최세진이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중국어의 변조(變調: tone sandhi) 현상과 경성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어도 이러한 변조현상이 있어 제3성과 제3성이 만나면 앞의 것은 제2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 때 이미 이런 현상과 경성에 대한 구체적 현상을 적시한 예는 중국에서도 찾을 수 없다. 실로 최세진의 언어에 대한 관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 실제로 『번역노걸대』나 『번역박통사』에 찍힌 방점을 분석하여 보면 이런 변조와 경성에 대한 현상은 여실히 검증되고 있다.¹³⁾ 한어라는 외국어를 올바르게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이를 가르치고 보급해야 할 입장에 있던 최세진은 스스로 예리한 통찰력을 발휘하여 정확하게 분석하였던 것이다.

2) 최세진은 훈민정음을 활용해 현실적인 중국어 발음부호 체계를 완성하였다. 최세진 이전에 『홍무정운역훈』이나 『사성통고』에 쓰인 전통 운서음의 발음부호 체계는 훈민정음의 철자법과 너무 달랐다. 이를 최세진은 이른바 “국속

13) 앞 책. 168-173쪽.

찬자지법(國俗撰字之法)"이라 하여 훈민정음 표기법에 보다 가까운 방법으로 중국어의 현실음을 적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찌”, “끼”, “빼”로 적던 것을 그 음의 변천에 따라 “치”, “키”, “피”로 고쳤고, “ங”, “뎡”을 종성에 쓰던 것을 없애고 “ㄱ”, “ㄴ”, “ㅇ”로 적었는데, 이것은 최세진 이전에 이미 중국음이 변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 중국어음을 정확하게 적지 못했을 뿐만 아니고 훈민정음에 익숙해도 실제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쉽게 알지 못하는 폐단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도 최세진은 전통 운서음을 버리지 않고 종래의 『홍무정운역훈』식 표음법을 유지하여 이를 “좌음(左音)”이라 하고 낱말의 한자 밑 왼쪽에 쓰고 새로 만든 훈민정음 식 발음부호인 국속 찬자지법에 의한 표기는 “우음(右音)”이라 하여 오른쪽에 병기하였다. 따라서 『번역노걸대』나 『번역박통사』에서는 전통 운서음과 현실음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번역하였던 것이다.

3) 최세진은 중국어를 조선어에 건주어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걸대』와 『박통사』를 번역하면서 그는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조선어에 빗대어 중국어의 현상을 설명하려 하였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특히 중국어의 성조를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에 집중된다.

지금의 일부 방언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지만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조선어에도 일부 낱말은 고저(高低) 혹은 장단(長短)에 따라 의미분화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한어 속에 특수하게 존재하는 사성(四聲)과 연관시키려는 노력은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에서부터 나타나는데 이것을 모두 방점(旁點)으로 표시하였다.

최세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한어의 사성과 조선어의 고저 혹은 장단 현상을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의 “국음(國音)”, “한음(漢音)”, “방점조(旁點條)”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비교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설명은 다른 문헌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조선어의 평성에 대해서 『훈민정음언해』에서는 “못 ㄴ가 ㅁ 소리”, 『훈민정음해례(訓民正音解例)』에서는 “安而和”,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에서는 “哀而安”, “低而安”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한어의 상성과 같아 무점(無點)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훈몽자회』〈범례〉에서는 “ㄴ가은 소리”, “哀而安”이라고 하였다. 조선어 상성에 대해서는 『훈민정음언해』에서는 “치서미 ㄴ갑고 乃終이 노 ㅁ 소리”라 했고, 『해례』에서는 “和而擧”라고 하였고, 「노박범례」에서는 “先低

而中按, 後厲而且緩”, “中按後厲”라 하고 이는 한어의 전탁(全濁) 불청불탁(不淸不濁)의 평성, 즉 양평(陽平)과 같아 이점(二點)이라고 하였으나, 『훈몽자회』 「범례」에서는 “기리혀 나중 들티는 소리”, “厲而舉”라 하였다. 조선어 거성에 대해서는 『훈민정음언해』에서는 “못노퐁 소리”라고 했으나 『해례』에서는 “舉而壯”이라고 하였으며, 『노박범례』에서는 “厲而舉”, “直而高”, “輕呼稍舉”, “孤直不安” 등이라 하고 이는 한어의 전청(全淸) 차청(次淸)의 평성, 즉 음평(陰平)과 상사(相似)하다 하여 일점(一點)이라 하였는데, 『훈몽자회』 「범례」에서는 “곧고 바르 노퐁 소리”, “淸而遠”이라 하였다. 조선어 입성에 대해서는 『훈민정음언해』에서는 “썰리 굶돌는 소리”, 『해례』에서는 “促而塞”이라 했고, 『훈몽자회범례』에서는 “곧고 썩른 소리”, “直而促”이라 하였는데, 『노박범례』에서는 거성과 같아 일점(一點)을 찍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훈민정음언해』나 『해례』 그리고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약 80년 후에 저술된 『노박범례』와 『훈몽자회』, 『범례』까지도 서로 그 설명이 다른 것은 음조(音調)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서도 그러하겠지만 조선어에는 한어와 같이 질서정연하게 모든 음절에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고저 혹은 장단 현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욱 크다.

실제로 조선어에는 훈민정음 창제 후부터 최세진의 『훈몽자회』(1527년)까지 81년간만 이런 방점을 찍다가 이후로는 사라지게 되는데 이는 조선어가 갑자기 성조어에서 비성조어로 변하였기 때문이 아니고 조선어에 나타나는 음조현상은 한어의 그것과는 달리 필수불가결의 철저한 대립적 변별자질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어의 음절에 뜨내기 자질로 따라 다니는 고저 혹은 장단 현상을 엄격한 의미의 성조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아울러 조선어를 성조어라고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조선어 음조의 고저 혹은 장단 현상을 한어의 성조와 같은 차원에서 서로 비교하여 그 실체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격적 노력은 허 응 님¹⁴⁾을 위시한 많은 국어학자가 시도하지만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도 근본적으로 중국어와 같은 성조가 조선어 속에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80년간의 방점에서 그것을 찾으려 했기 때문일 것이다.

14) 허 응(1963). 『國語聲調研究』, 『중세국어연구』, 정음사. 서울. 254-380쪽.

실제로 고저 혹은 장단의 음조가 중국어 성조처럼 일률적이라면 조선어에 짝은 방점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낱말에는 같은 방점이 찍혀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은 예는 『번역노걸대박통사』에 무수히 많이 나타난다.

· 큰 형 · 님(번역노걸대 상 1장앞면2행)

· 큰 형님(번역노걸대 상 7장뒷면3행)

큰 형 · 님(번역노걸대 상 64장앞면2행)

어 · 두 · 은(번역노걸대 상 37장앞면7행)

어 · 두은(번역노걸대 상 55장앞면4행)

· 어미(번역노걸대 상 15장뒷면9행)

:어 · 미(번역노걸대 상 16장앞면2행)

· 어 · 미(번역노걸대 상 16장앞면5행)

어미(번역노걸대 하 5장뒷면4행)

어 · 미(번역노걸대 하 34장앞면3행)

위와 같이 한 낱말임에도 그 방점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한어에 있는 성조를 조선어에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조선어와 한어가 같은 선상의 성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성조(聲調:tone)”는 분절음(分節音:segment) 위에 얹혀 나타나는 초분절소(超分節素)로 음조(音調:pitch)의 일종이다. 이러한 성조는 다른 언어에서와는 달리 중국어에서는 변별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모든 음절에 필수불가결로 존재한다. 특히 중국의 북방에서 시작된 유성음과 무성음 간의 대립과 입성이 소멸되면서 성조는 더욱 중요한 변별 요소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모든 음절에 각기 대립적인 고저기복(高低起伏)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현대 중국 북방어에서 제1성이 높은 소리라면 제3성은 낮은 소리, 제2성이 올라가는 소리라면 제4성은 내려가는 소리로 모든 음절을 분화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 20세기 초부터 “성조”라는 학술용어를 쓰기 시작하였고 따라서 중국어를 성조어라고 한다. 하지만 조선어에서는 이러한 고저나 장단이 모든 음절에 대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때의 조선어를 성조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최세진은 장악하기 어려운 한어의 성조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비록 중국어의 성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조선어 속에 있는 고저 혹은 장단의 음조까지 면밀히 관찰하여 서로 대비시킴으로써 학습자가 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애를 쓴 것임에는 틀림없다.

4) 『번역노걸대』는 상권이 71장, 하권이 73장 분량이다. 『번역박통사』는 상권이 76장의 분량이다. 이 『번역박통사』를 수정한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를 통해 살펴보면 중권이 61장 하권이 62장이나 된다. 『번역박통사』가 면당 9행인 반면 『박통사언해』는 면당 11행임을 감안하면 『박통사』의 분량은 『노걸대』보다 훨씬 많다.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1677년)는 상·하 합쳐 130장이고 『박통사언해』는 상·중·하를 합쳐 190장이다.

『노걸대』의 내용은 실용적 한어 회화를 익힐 수 있도록 짜여 있다. 중국으로 물건을 팔러 가는 고려 상인이 중국 상인을 만나 함께 여행하면서 주고 받은 이야기로 상권과 하권에 모두 약 40개 정도의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상황별 대화 내용은 대체로 북경까지의 여정(旅程)·인삼이나 비단 등의 매매(賣買)·계약에 관계된 일·질병과 의약품에 관계된 것·숙박에 관한 이야기·먹을 것·잔치 등등의 일상에 관한 것들이다.

『박통사』는 모두 111개의 상황이 설정되어 있고 각 상황은 행을 바꾸어 구별해 놓고 있다. 여기에 설정된 각 상황은 현실에 바탕을 둔 실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생동감이 넘친다. 제1상황은 좋은 시절을 만나 갖가지 먹을 것을 준비하여 한바탕 질펀한 잔치를 벌이며 고담준론(高談峻論)으로 인생을 논하는 장면이고, 제2상황은 고려 원판(院判)이 도당(都堂)과 총병관(總兵官)에게 보내는 조서를 들고 가다가 사람을 만나 함께 가게 되는 과정을 그렸고, 제3상황은 큰 홍수가 나 무너진 담을 사람 불러 견고하게 보수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시풍속(歲時風俗)·요동(遼東)의 풍물·상혼(喪婚)·각종 오락·말타기와 활쏘기, 심지어는 고려건국(高麗建國)·서유기(西遊記)·화상검부(和尚劫婦)·탐인부녀(貪人婦女) 등등에 관한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무궁한 내용과 수많은 지명(地名)·물명(物名)·요리명(料理名)·과일과 채소명·인명(人名)·서명(書名)·역사·문학·민속 등등에 대해 최세진이 일일이 번역한 것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5) 최세진은 『노걸대』 『박통사』에서 간단히 번역할 수 없는 난해한 글자나 낱말을 따로 모아 주석하고, 문법적 설명을 보태어 펴낸 책이 『노걸대박통사집람』이다. 이는 『노걸대』 『박통사』를 위한 일종의 사전이라 할 수 있겠는데, 「범례(凡例)」, 「단자해(單字解)」, 「누자해(累字解)」, 「노걸대집람(老乞大集覽)」 상·하, 「음의(音義)」, 「박통사집람(朴通事集覽)」 상·중·하로 총 57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모두 798개의 어휘에 대해 해설하였다. 「단자해」에서는 중요하거나 어려운 한자에 대해 그 음을 설명하거나 의미를 풀이하고 예문을 들기도 했으며 문법적인 설명을 하고 있어 오늘날의 자전(字典)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누자해」에서는 중요한 낱말을 한문으로 설명하거나 훈민정음으로 번역하였다. 또 『노걸대』 『박통사』에 나오는 중요 단어나 지명 등의 고유명사를 주석하거나 훈민정음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는데, 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喫: 正音키, 俗音치, 啖也, 喫飯, 喫酒. 又被也, 喫打, 맞다. 字雖入聲而俗讀去聲或呼如上聲, 俗省文作吃. (『단자해』 1장 앞면 1행)

(喫은 정음으로는 키이나 보통 치로 읽는다. 啖과 같다. 喫飯<밥먹다>. 喫酒<술먹다>. 또 被와 같다. 喫打, 맞다. 이 글자는 비록 입성이지만 보통은 거성 혹은 상성 비슷하게 읽고, 또 간단하게 吃로 쓴다.)

禿禿麼思: 一名手撇麵, 卽本國의역저비. 禿字音투上聲, 讀麼思二合爲音맛, 急呼用思字曰투투맛, 慢言之, 則用食字曰투투·마·시. 元時語如此, 劑法… (『박통사집람』 중 1장 뒷면 3행)

(禿禿麼思는 일명 수별면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의역저비이다. 禿자는 음이 투로서 상성이다. 麼思를 합하여 읽으면 그 음이 맛이 되어, 급하게 思자를 발음하면 투투맛이 되고, 천천히 말하면 食자로 읽어 투투·마·시가 된다. 원대의 말은 이러하다. 그 요리법은…)

최세진은 많은 어휘를 정확하게 주석 및 번역하기 위하여 『광운(廣韻)』, 『운략(韻略)』, 『문헌통고(文獻通考)』, 『번역명의(翻譯名義)』, 『사기(史記)』 등 무려 60여 종을 인용하였다. 또 알 수 없는 것은 중국에 가 물어보고 바로 잡았으나, 그래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해석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작업을

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의 한 단면이 『노박집람범례』에 잘 나타나 있다.

質問者，入中朝，質問而來者也。兩書皆元朝言語，其沿舊未改者，今難曉解，前後質問，亦有牴牾，姑并收，以祛初學之碍。間有未及質問，大有疑碍者，不敢強解，宜竣更質。(『노박집람범례』 1장 뒷면 4행)

(질문이라고 표시한 것은 중국에 들어가 질문하여 알아온 것이다. 『노걸대』와 『박통사』 두 책이 모두 원대의 말이어서 그 연원이 오래도록 고치 지 않은 것은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질문할 때마다 차이가 났지만 잠시 함께 실어 초학자의 의문을 통하게 하였다. 간혹 질문하지 못하여 크게 의문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히 함부로 해석할 수 없었으니 마땅히 다시 질문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세진은 원대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시까지 쓰인 경우에는 원대의 말임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노걸대』, 『박통사』를 실제로 수정하지는 않았다.

阿：俗音하，阿의猶言此也，又語助辭，有阿沒，잇느녀업스녀，皆元朝之語。(『단자해』 2장 앞면 7행)

(阿는 속음이 하이다. 阿의라 하는 것은 此와 같은 말이다. 또 어조사로 쓰인다. 有阿沒은 있느냐 없느냐의 뜻이다. 모두 원대의 말이다.)

최세진은 원대의 말이 당시에 확실히 쓰이지 않는 경우에는 『노걸대』, 『박통사』를 수정하였다. 지금 전해 오고 있는 한자만 적힌 『노걸대』도 아래와 같은 “時”와 “者”의 경우는 “時” 혹은 “便”과 “着”으로 수정되어 있음을 보면 한자만 적힌 『노걸대』도 최세진의 손에 의해 수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세진은 아래의 예를 제외하고는 몽고말이라는 주석을 달고도 고치지 않았다. 여기에서 가능하면 원문을 지키려는 번역자로서의 태도를 엿볼 수 있거니와 그 당시에도 그런 말이 그대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時：猶則也，古本用阿字，今本皆易用時字或用便字。(『단자해』 5장 앞면 6행)

(時는 則과 같다. 고본에서는 呵자를 썼다. 금본에서는 모두 時자나 혹은 便자를 쓴다.)

者: 蒙古語, 謂諾辭曰者, 兩書舊本皆述元時之語, 故多有者字, 今俗不用, 故新本易以着字.(『단자해』 6장 후면 7행)

(者は 몽고어에서 “謂諾辭”로 者를 쓴다. 『노걸대』, 『박통사』 두 책의 구본은 모두 원대의 말을 적었기 때문에 者자를 많이 쓰고 있다. 오늘날 구어에서는 쓰지 않는다. 따라서 신본에서는 着자로 바꾸었다.)

이례적으로 최세진이 실수를 범한 것으로 보이는 예가 아래와 같이 하나 있기도 하다.

漢兒人有: 元時語, 必於言終用有字, 如語助而實非語助. 今俗不用.(『노걸대집람』 상 1장 앞면 4행)

(원대의 말에서 말이 끝나면 반드시 有자를 쓰는데, 이는 어조사 같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지금의 구어에서는 쓰지 않는다.)

이 주석의 원문을 보면 “你的師傅是甚麼人, 是漢兒人有, 多少年紀, 三十五歲了”(『노걸대』 2장 앞면 9행)라고 되어 있고 이는 『번역노걸대』나 『노걸대언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것은 “有” 다음에 구두점을 찍을 것이 아니고, “人” 다음에 구두점을 찍어 “你的師傅是甚麼人, 是漢兒人, 有多少年紀, 三十五歲了”로 해야 할 것이었다. 이것은 『노걸대신석』에서야 수정되어 “是漢兒人啊, 有多大年紀了”(『노걸대신석』 2장 후면 7행)로 바뀐다.

(3) 번역 후의 영향

최세진이 처음 『노걸대』와 『박통사』를 번역함으로써 그가 세운 전통은 조선 조 내내 중국어 교습서에 이어지게 된다. 중국어와 조선어가 어음·어휘·어법에 걸쳐 변하게 됨에 따라 이를 수정할 필요성을 느낀 조선조에는 이후 줄곧 수정판을 내어놓게 되었던 것이다.

최세진의 번역본을 저본으로 수정한 『노걸대』, 『박통사』 류로는 『노걸대언해(老乞大諺解)』(1670년)와 『박통사언해(朴通事諺解)』(1677년)가 있다. 이 두 책

의 중국어는 『번역노걸대박통사』와 거의 같으나 그 동안 변화된 조선어가 반영되어 있어 조선어의 변화를 연구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하지만 중국어의 발음부호체계는 달라져 성조를 표시하는 방점을 찍지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 반영된 중국어는 어음적으로는 『번역노걸대박통사』와 다르지만 어법·어휘적으로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어 다시 수정된 교습서로 한어 부분만 적혀 있는 『노걸대신석(老乞大新釋)』(1761년)과 『박통사신석(朴通事新釋)』(1765년) 및 『중간노걸대(重刊老乞大)』(1795년)가 출간되었다. 이 교습서는 그 동안 변화된 중국어를 대거 반영하였지만 한자의 발음이 적혀 있지 않고 언해 또한 없어 중국어의 어법 및 어휘의 변화만을 볼 수 있을 따름이다. 후에 이 책을 언해하여 『박통사신석언해(朴通事新釋諺解)』(1765년)와 『중간노걸대언해(重刊老乞大諺解)』(1795년)를 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노걸대언해』나 『박통사언해』와 같이 그동안 변화된 조선어가 반영되어 있고, 방점은 없으나 중국어의 발음도 적혀 있어 그동안의 변화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된다. 『노걸대』 『박통사』류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면 1300년 내지 1400년대의 중국어의 어법 및 어휘와 1500년대의 어음이 1600년대 및 1700년대 중엽을 거쳐 말엽으로 가는 사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알아 볼 수 있으며,¹⁵⁾ 국어사적으로도 이 기간의 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IV. 결 론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세진은 다른 역관과는 달리 많은 저술을 남긴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어학자였다. 그는 40년간에 걸쳐 7종의 저작과 10종의 번역 내지는 언해서를 저술하였다. 이러한 그의 저술은 역관이라는 그의 직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 역관은 두 나라의 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최세진은 누구보다도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이었다. 중국어와 조선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면 『노걸대』와 『박통사』 같은 방대한 분량의 책을 번역 내지 언해하고 이에 대한 정연한 이론 체계를 확립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15) 강식진(1985)에 중국어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상세히 연구되어 있다.

우리의 국어학계에서는 최세진이 국어학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어학에 남긴 공헌도 미미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이는 결코 그렇게 간단히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최세진이 독자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선어를 연구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남긴 국어학의 귀중한 자료까지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오늘날 접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은 한어나 조선어에 대한 깊은 관찰과 연구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비록 그의 시대 전후에 있었던 국어학자들과 이질적이었다고 해서 그를 국어학자라고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최세진이 활동하던 시기는 결코 국어학을 연구하던 시기가 아니었으며, 그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한문이나 “보는 글”이 아닌 한어라는 “입말”을 가르치고 또 쉽게 배우게 하기 위해 이를 연구하면서 조선어와 대비하여 분석하는 과정에서 중국어와 아울러 조선어에 대한 깊은 관찰을 하였던 것이다.

물론 최세진이 남긴 저술만을 오늘의 시각에서 판단한다면 그는 단순한 중국어학자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저술은 모두 당시의 조선어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는 조선어에 나타난 제 현상을 이해하고 훈민정음을 완전히 장악한 학자였다. 당시 상황으로 중국어는 국경을 넘어서의 관계에 쓰이는 가장 보편적 언어였고 조선어는 그들이 국경 내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였다. 이 두 언어에 대해 깊은 이해가 없었다면 이런 저술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를 비교언어학자라 할 수 있을지언정 국어학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나아가 당시의 학풍과 실용적 측면에서 그리고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어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 하였다고 단순한 중국어학자로만 치부해 버릴 수는 더욱 없을 것이다.

최세진은 한낱 역관의 신분이었으나 조선조 전체를 통틀어 운학이나 역학 방면의 단독 저술을 이 만큼 남긴 인물은 없었다. 한낱 역관의 신분으로서 뛰어난 학문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은 조선 왕조 최고의 중국어학자 혹은 언어학자로서 마땅히 추앙받을 만한 인물임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최세진의 왕성한 번역 활동으로 생산된 『번역노걸대박통사』를 통해 연구하였거나 연구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한자음을 반절이 아닌 훈민정음이라는 훌륭한 부호체제로 그 구체적 발음을 표기하고 방점으로 성조까지 표시하여 당시의 구체적 현실 한자

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 이로부터 15세기 중국어의 현실음을 구체적으로 알아 볼 수 있다.

- ② 1300년대 한어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많은 주석을 달아 놓아 당시의 중국어 어휘나 어법적 문제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 ③ 「번역노걸대박통사범례」에서 한어의 성조를 포함한 발음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이를 조선어와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한어 및 조선어에 대한 정보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조선어 음조(音調)를 한어의 성조와 비교 설명함으로써 조선어의 고저 혹은 장단의 실체를 밝힐 수 있고 특히 언해 부분에까지 방점을 찍어 이에 대한 실체적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 ④ 최세진은 “국속찬자법(國俗撰字法)”을 창안하여 문헌적 전통음인 절운계(切韻系) 운서음의 사음체계를 당시의 한어 현실음을 적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습자는 보다 쉽게 한어 발음을 할 수 있게 하였고, 오늘날 정확한 당시 중국어음의 변화상을 고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최세진이 수립한 한어교습서의 전통으로 이후 연이어 출간되는 『노걸대』, 『박통사』의 언해, 신석, 중간본으로부터 한어 및 조선어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 ⑥ 『노걸대』와 『박통사』에는 역사적, 민속적, 지리적, 문화적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⑦ 16세기 초 생생하고도 풍부한 조선어의 평속체(平俗體) 구어 자료를 보여 주고 있어 이 시기의 국어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 ⑧ 훈민정음 식 한어 발음표기로부터 훈민정음의 변화된 음가를 살필 수 있다.
- ⑨ 조선어에 대한 한어 대역을 통해 이 시기 조선어를 형태론 및 통사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
- ⑩ 이 시기의 조선어 어휘가 다른 어떤 자료보다도 풍부하게 기록되어 있어 이 시기의 어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참 고 문 헌

1. 원시 자료-영인 출판

- (1) 『老乞大』(1346-1423년).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3.
- (2) 『(번역)老乞大』(1517년 전). (번역)朴通事. 1517년 전.
『老乞大 潮』. 중앙대 대학원. 서울 : 1972.
『老乞大 下』.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인천 : 1975.
『翻譯老乞大朴通事』. 서울 : 대제각. 1974.
『原本 老乞大諺解全』. 아세아문화사. 1980.
『翻譯老乞大(下)』. 서울 : 대제각. 1988.
- (3) 『老朴集覽』(1517년 전) 이병주 編校. 서울 : 동국서림. 1966.
- (4) 『老乞大諺解』(1670년) 『朴通事諺解』(1677년)
『老乞大諺解』. 경성 :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1944.
『老乞大朴通事諺解』. 서울 : 아세아문화사. 1973.
『老乞大諺解 朴通事諺解』. 聯經出版事業公司. 臺北 : 1977.
- (5) 『舊刊老乞大』(1745년) 규장각 도서 233.
- (6) 『老乞大新釋』(1761년) 규장각 도서 4871. 『朴通事新釋』(1765년). 서울대
학교 장서각.
- (7) 『重刊老乞大』(1795년). 규장각 도서 932. 2052. 3173. 5198.
- (8) 『重刊老乞大諺解』(1795년). 서울 : 홍문각. 1984.
- (9) 『朴通事新釋諺解』(1765년). 서울 : 홍문각. 1984.

2. 『노걸대』 『박통사』류 어휘색인

- 서상규. 『번역노걸대 어휘색인』. 서울 : 도서출판 박이정. 1997.
陶山信男 編著(1973), 『朴通事諺解·老乞大諺解 語彙索引』 東京 : 采華書林.
陶山信男 등(1979). 『朴通事諺解索引』. 臺北 : 文海出版社.

3. 『노걸대』 『박통사』류 번역서

- 국어사자료연구회 譯註 翻譯老乞大(서울 : 태학사. 1995)
Svetlana Rimsky-Korsakoff Dyer(1983). *Grammatical Analysis of Lao Ch'i-ta*. Canberra,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4. 단행본

강식진(1985). 「老乞大」朴通事」研究--諸書之著成及其書中漢語語音語法之析論一. 臺北：學生書局.

강신항(1973). 『四聲通解研究』. 서울：신아사.

김민수(1964). 『신국어학사』. 서울：일조각.

박태권(1976). 『국어학사논고』. 서울：샘문화사.

서병국(1978). 『新講국어학사』. 서울：학문사.

小倉進平(1964). 『増訂 朝鮮語學史』. 東京：刀江書院.

유창균 강신항(1974). 『국어학사』. 서울：민중서관. 8판

유창균(1988). 『국어학사』. 대구：형설출판사.

유창균(1963). 『新稿국어학사』. 대구：형설출판사.

이기문(1991). 『국어 어휘사 연구』. 서울：동아출판사.

허 웅(1963). 『中世國語研究』. 서울：정음사.

5. 논 문

강신항. 「老乞大·朴通事諺解 內 字音의 音系」. 『동방학지』 18집. 연세대학교학연구원. 1978.

강신항. 「老乞大·朴通事諺解 內 字音의 音系」. 『동방학지』 18집 연세대학교학연구원. 1978.

강신항. 「朴通事新釋諺解 內 字音의 音系」. 『학술원 논문집』 인문·사회과학 편. 17집. 학술원. 1979.

강신항. 「翻譯老乞大·朴通事の 音系」. 『진단학보』 38집. 진단학회. 1974.

김선옥.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음운 체계 변천 연구」. 『중원어문』 제7호. 건국대 국어국문학회. 1991.

김언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의 비교 연구」. 『국어국문학』 26호. 부산대 국어국문학회. 1989.

김완진. 「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연구총서』 13집. 한국연구원. 1976.

김완진. 「翻譯朴通事와 朴通事諺解의 비교 연구」. 『동양학』 5집. 단국대학 동양학 연구소. 1975.

김완진. 「重刊老乞大諺解의 연구」. 『한국문화』 13호.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3.

- 김완진, 「중세한국어성조의 연구」, 『韓國學紀要』 1집, 서울 : 서울대 대학원, 1973.
- 남광우, 「翻譯老乞大解題」, 『老乞大 潮』, 중앙대 대학원, 1972.
- 남광우, 「新發見인 崔世珍저 翻譯老乞大 卷上을 보고」, 『국어국문학』, 55-57
합병호, 국어국문학회, 서울, 1972.
- 박희룡, 「老乞大의 諺解와 翻譯에 대한 비교연구」, 『국어연구』 82호, 서울 :
국어연구회, 1988.
- 서재극, 「翻譯老乞大의 어휘」, 『조선전기의 언어와 문학』, 한국어문학회편, 대
구 : 형설출판사, 1980.
- 楊聯陞, 「老乞大·朴通事裏의 語法·語彙」, 『歷史語言研究所集刊』, 29本 上冊,
中央研究院, 臺北, 1957.
- 유창균, 「翻譯朴通事의 中國音에 대한 고찰」, 『嶺大論文集』, 제1집, 1968.
- 이돈주, 「翻譯老乞大·朴通事의 漢音 上聲 變調에 대하여」, 『周時經學報』 3
집, 서울 : 답출판사, 1989.
- 이돈주, 「翻譯老乞大·朴通事의 漢音 調值에 대하여」, 『국어학』 18집, 서울 :
답출판사, 1989.
- 이병도, 「老朴集覽研究」, 『동국대학교 논문집』 2집, 동국대, 1965.
- 이승녕, 「최세진연구」, 『亞細亞學報』, 제1집, 서울 : 아세아학회, 1965.
- 임동석, 「朝鮮譯學考」, 臺灣師範大學 國文研究所 박사학위 논문, 臺北, 1982.
- 허 응, 「국어 성조 연구」, 『중세국어연구』, 서울 : 정음사, 1963, 254-380쪽.